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이사야 1장 17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은, 교회들과 교파들 사이에 나타나는 분열이 더욱 넓은 인류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다.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하여 성찰하게 되고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억압과 분열에 맞서는 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된다.

기도자료집 | 1월 18~25일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교황청·세계교회협의회·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2023년 1월 18-25일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이사야 1:17 참조)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 ·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 목차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6
주제 성구 · 8
주제 소개 · 9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17
일치 기도 예식
예식 소개 · 21
예식 순서 · 24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제1일 옳은 일을 하도록 배우기 · 34
제2일 공정을 실천하는 것을... · 36
제3일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걸어가라 · 38
제4일 보라,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 40
제5일 그 땅의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기 · 42
제6일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45
제7일 지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 47
제8일 친교를 되찾아 주는 정의 · 50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 52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1968-2023년) · 57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62
8기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64

---

\*일러두기: 성경은 「공동번역 개정판」을 사용하였습니다.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Paul Wattson)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울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교회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과 직제 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탄력적일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 자료의 수정

이 자료는 지역 차원의 용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수정해도 좋다는 양해 아래 제공된다. 수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전례나 신심 관행,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리스도인 일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지역에서는 자료 수정을 위한 교회 일치 기구들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 작업을 위하여 그러한 기구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 자료의 사용

- 공통된 하나의 예식으로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위하여 일치 기도 예식서가 제공된다.
-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예식에 기도 주간의 자료를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일치 기도 예식서의 기도들이나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또는 이 자료에 첨가된 기도 가운데 일부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내는 공동체들은 그 주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내용들을 그 예식에 도입할 수 있다.
- 또한 이 기도 주간의 주제에 관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과 묵상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에는 날마다 별이는 토론에 도전이 포함되며, 이는 청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기도 지향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더욱 명백한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다.

## 주제 성구

### 이사야 1:12-18

너희가 나를 보러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 뜰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제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 주제 소개

###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이사야 1:17 참조)

#### 서론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유다에 살았던 예언자였다. 이사야는 아모스와 미가와 호세아와 동시대인이었다. 이 시기에는, 당대의 '초강대국들'인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세력이 약해져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제 대호황의 시기와 정치적 안정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 두 왕국에 불의와 불공평과 불평등이 만연하던 때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예식과 공적 표현으로 변영하며, 성전 봉헌과 희생 제물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공적인 예식의 종교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기부금의 수혜자들이기도 하였던 사제들이 주도하였다. 왕궁과 성전의 물리적인 근접성과 상호관계성으로 권력과 세력이 거의 전적으로 왕과 사제들에게 집중되었고, 이 역사 시기에 대체로 왕과 사제들은 그 누구도 억압과 불평등을 견뎌내고 있는 이들을 옹호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세계관(이는 역사 안에서 다시 나타나고는 한다)에서, 부자들과 많은 제물을 바치는 이들은 선한 이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여겨졌



고, 반면에 가난하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이들은 악한 이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여겨졌다. 가난한 이들은 성전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종종 모욕당하였다.

이사야는 유대 민족이 놓인 현실 앞에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려 애쓰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사야는 당대의 신앙심을 축복으로 추앙하는 대신에 그러한 신앙심을 꺾어 터진 상처로 그리고 전능하신 분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보았다. 불의와 불평등은 파편화와 불화로 이어졌다. 이사야의 예언들은 정치, 사회, 종교 구조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위선을 고발한다.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정을 찾으며,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부패한 지도자들에 맞서 강력하게 발언한다.

미네소타 교회협의회(Minnesota Council of Churches)가 선임한 실무단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핵심 본문으로 이사야 예언서 1장에서 다음 구절을 선택하였다.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이사야 1:17).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라고 요구하신다고 가르쳤다. 오늘날 우리 세계는 이사야가 설교하던 당시에 직면하였던 분열의 도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한다. 공정과 정의와 일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함께 지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본질이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계 7:9)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언제나 바라시는 평화와 일치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 시대의 신앙심에 대하여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격렬하게 말한다.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서는 역겹다. ...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 버리리라”(이사야 1:13-15). 이사야는 그릇된 일을 밝혀내며 이렇게 맹렬한 규탄을 쏟아내고

바로 이러한 부당한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 준다.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이사야 1:16).

오늘날에도 어떤 한 집단이나 계층에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특권이 주어질 때 분열과 억압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인종 차별의 죄는, 한 ‘인종’<sup>1)</sup>을 다른 인종과 구별짓거나 다른 인종보다 높이는 어떤 믿음과 관행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힘의 불균형이 인종적 편견과 함께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때에 이러한 편견은 개인 인간관계를 뛰어넘어 바로 사회 구조에, 곧 인종 차별의 영속적 체계화에 이르게 된다. 단순히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문화적 연관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편견이 존재하여 교회들을 포함한 일부만 부당하게 혜택을 받아 왔고, 다른 이들은 부담을 떠안고 배제당하여 왔다.

성경 예언자들에게 상당히 맹렬한 비난을 받은 종교인들처럼 일부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편견과 억압을 지지하거나 이어 나가도록 하는 데에 그리고 분열을 촉진하는 데에 연루되었거나 계속해서 연루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대신에 인종이라는 비논리적인 근거로 다른 이들의 존엄을 빼앗아가는 노예 제도, 식민지화, 인종 분리, 아파트헤이트와 같은 죄의 구조 안으로 아주 흔하게 자신을 몰아넣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 준다. 그래서 교회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받은 모든 이의 존엄을 몰라보고, 소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 자매형제들의 존엄을 하찮게 여겼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기억에 남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주일 오전 11시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인종 분리적 시간이라는, 또는 적어

---

1) 한 인종, 곧 인간이라는 인종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종 신화가 인종 차별의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인종은 생물학적이지 않다. 인종은, 육체적 특징에 따라 인류를 분류하는 사회적 구성체이다. 이 용어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 집단을 효과적으로 나누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 가장 인종 분리적 시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비극 가운데 하나이자 가장 수치스러운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연설은 그리스도인들의 불일치와 인류의 불일치의 접점을 드러낸다. 모든 분열의 뿌리는 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 피조물 전체에 바라시는 일치를 거스르는 태도와 행동에 있다. 비극적이게도 인종 차별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갈라놓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며 때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분열시켜 왔던 죄 가운데 하나이다.

안타깝게도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 있던 시대 이후에도 많은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주일 예배 시간인 오전 11시는 종종 그리스도인 일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인종적 사회적 구분과 교파의 구분에 따른 분열을 보여 준다. 이사야가 선언한 것처럼, 신앙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이다.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이사야 1:15).

## 선행을 배워라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하여 선정한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러한 병폐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러 준다.

선행을 배우려면 자기 성찰을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은, 교회들과 교파들 사이에 나타나는 분열이 더욱 넓은 인류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다.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하여 성찰하게 되고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억압과 분열에 맞서는 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된다.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선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강조한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

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가 6:8)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인종, 성별,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초한 오랜 역사적 불이익을 해결하고자 참으로 공정한 처우를 요구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회개와 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가 요구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 당신의 모든 자녀의 평등을 위한 책임을 나누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피조물 전체가 화해하여 이룬 일치의 표징이자 그 일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그 표징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교회의 사명인 치유를 상처받은 세상에 가져다주는 대신에 분열을 더 부추긴다.

### 공정을 추구하여라

이사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공정을 추구하라고 권고한다(이사야 1:17 참조). 이는 그들 사회에 불의와 억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 상황을 타도하라고 간청한다. 공정을 추구하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맞서야만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때때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억압에 맞서 공정을 옹호하는 것이 하늘 나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확언하신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 5:10).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사회 규범에 순응해 왔고 인종 불의에 침묵 또는 적극적인 공모로 일관해 왔는지를 시인하여야 한다. 인종적 편견은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지게 해 온 그리스도인 분열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백인 우월주의와 신대륙 발견에 대한 가르침<sup>2)</sup>과 같은 치명적인 이념들은, 수 세기에 걸쳐 특히 북아메리카에 그리고 세계 전역에 백인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로 만든 땅에 해를 입혔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기꺼이 억압 구조를 무너뜨리고 공정을 지지하여야 한다.

2) 신대륙 발견에 대한 가르침은 알렉산데르 6세 교황의 칙서(1493.5.4.)에서 비롯되었고, 온 세상에 만연하였으며, 이는 토착민들과 노예살이를 한 이들의 후손들과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교회에 이득을 주었다. 이는 식민화하는 세력들이 이러한 땅들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근거하여 토착민들의 땅을 장악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미네소타 집필진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었던 해에 억압의 악행과 파괴가 여러 형태로 세계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고통은 많은 지역에서, 특히 남반구의 저개발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많은 이들이 최저 생활조차 거의 할 수 없었고 실질적 원조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도서 저자가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늘 아래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그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더구나. 억압하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감싸주는 사람도 없더구나.”(전도서 4:1).

억압은 온 인류에 해를 입힌다. 공정 없이 일치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현재 벌어지는 억압과 세대 간의 억압을 인정하고 이러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한 경고를 명심하여야 한다.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기에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이사야 1:15-16).

### 억압받는 이를 보살피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 특히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을 향한 우리 태도를 분리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전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헌신은 우리에게 미쉬파트(mishpat)라는 히브리말이 뜻하는 회복시키는 공정에 참여하며, 침묵당한 이들을 대변하고, 불의를 만들고 유지하는 체제를 해체하며, 모든 이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마땅한 권리를 받드시 누리도록 촉진하는 다른 체제들을 세우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친구, 가족, 교파들을 넘어 온 인류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밖으로 나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그들의 고통과 정신적 충격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그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폭동은 침묵 당한 이들의 언어이다.”라고 말하곤 하였다. 시위와 시민들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주로 시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동참한다면, 공정과 자유를 향한 그들의 외침은 더욱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다. 우리는 일치 안에서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

##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과부와 고아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사회의 가장 힘없는 이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의 경제 호황이라는 맥락에서 고아와 과부의 상황은 절박하였다.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능력마저도 빼앗겼다. 예언자는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가장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예언적 요청은 우리 시대에도 울려 퍼지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이 누구인지 숙고해 본다.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침묵 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식탁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이들은 누구인가?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대화와 공동 행동과 기도에서 어느 교회와 공동체를 놓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놓치고 있는 목소리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꺼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 결론

이사야는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선행을 배우고 **함께** 공정을 추구하며 **함께** 억압받는 이를 보살피고 **함께**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라고 요구하였다. 이사야의 이러한 요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시대의 악행과 불의에 맞서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화에 어

떻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서로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통찰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가?

마음으로 바치는 이러한 기도와 만남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변화되고 억압의 체계를 무너뜨리며 인종 차별이라는 죄를 치유하고자 하면서 우리의 모든 만남 안에서 하나님 현존에 우리 마음을 열도록 하자. 우리 사회의 공정을 위하여 우리 함께 노력하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

미네소타 교회협의회가 소집한 미국 그리스도인 모임이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 준비를 준비하였다. 이 그룹은 2020년 12월에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만났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서로 이미 알고 있었고, 모든 이가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를 알고 있었다. 일부는 그 미네소타 교회협의회의 지도자들이었고, 자신들의 교회와 공동체의 활동가/사목/목회자들이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국제준비위원회는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을 마무리하고자 2021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샤토 드 보세에서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대표들과 만났다.

미네소타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심각한 인종 차별이 있었던 지역이다. 1862년 미네소타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살이 있었다. 다코타 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로, 성탄절 다음 날 다코타 원주민 38명이 맨카토에서 교수형을 당하였다. 38명의 원주민은 자신들의 죽음을 앞두고, '헤아릴 수 없고 크나크신'(Wakantanka taku nitawa, Many and Great)이라는 성가를 불렀다. 이 성가는 이 예식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미네소타는 인종 심판의 중심지가 되었다. 코로나19로 2020년 3월에 전 세계가 봉쇄되었을 때, 미니애폴리스 경찰인 데릭 쇼빈의 손에 짙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목격한 불의에 맞서 항의하고자 일치와 정당한 분노로 거리로 나왔다. 쇼빈은 폭행 이후에 바로 해고되었고<sup>3)</sup>, 미네소타에서 흑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

---

3)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의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국장인 메다리아 아라돈도가 쇼빈을 해고하였다.



죄 판결을 받은 현대 미국사에서 최초의 경찰이 되었다.

미국에서 유색인 공동체를 확대한 역사는 오랜 세월을 걸쳐 공동체 간의 불공평과 관계의 균열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미국 교회의 역사는 인종 문제를 교회 분열의 주요 요소에 포함한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교리와 무관한 다른 사안들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가 해 온 일치에 관한 신학적 활동이 전통적으로 교회 일치를 추구하고 인종 차별과 같은 인류 가족을 분리하는 장벽들의 극복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려고 한 이유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창조되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인 우리를 갈라놓는 것에 맞서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기도, 특히 일치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4)</sup> 이러한 역사적 인종 문제들을 이미 다루고 있었던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올해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성경 독서, 주제, 음악, 예식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실무단을 소집하였다.

이 실무단은 불안한 일선에서 일해 온 여러 세대에 걸친 미네소타의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지역의 영적 돌봄과 공동체 돌봄을 책임져 왔고, 하나님 백성의 좌절과 울부짖음을 증언하여 왔다. 이 실무단의 위원들은 다양한 문화와 영성 공동체들을 대표하였고, 최근 심판의 중심에 있었던 원주민과 흑인 공동체들도 포함되었다. 이 자료집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공동체들은 계속해서 초법적 처형<sup>5)</sup>과 급증하는 폭력으로 아동 살해를 체험하며,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의 재판과 조지 플로이드 추모식을 위하여 사람들이 미국 국회의사당까지 시위행진을 하는 동안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자료집

---

4) 다음이 그 예이다. Unity in Today's World-The Faith and Order Study on the Unity of the Church and the Unity of Humankind, Geneva, WCC, 1978; Church and World-The Unity of the Church and the Renewal of Human Community, Geneva, WCC, 1990.

5) 이 용어는 법률이나 사법적 과정 없이 정부 당국이 시행하는 처형을 의미한다. 2021년 4월에 단테 라이트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그 예이다.

작성 회의는 활력과 지지와 기도가 깃든 거룩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집필 위원들은 남자들, 여자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야기 전달자들, 치유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예식 경험과 영성적 표현들을 대표하였다. 이들 안에는 미국의 원주민들도 있고, 강제 이주민과 자발적 이주민 공동체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자기 언어와 문화의 역사를 다양한 차원으로 보여 주며 이제는 이주한 곳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다. 위원들은 도시와 교외 지역들과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대표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많은 관점을 통하여 더 깊은 성찰과 연대를 이루도록 하였다.

미네소타 집필 위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인종 차별과 인간 폄하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 자녀의 비인간성에 대한 증언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바로 마음속 깊은 갈망으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열에 맞서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치의 선물을 구현한다.

## 국제준비위원회 위원

- Revd. Father Martin Browne, OSB
  - Glenstal Abbey, Ireland
- Ms. Anne-Noëlle Clément
  - Unité Chrétienne, France
- Revd. Anthony Currer
  -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Vatican
- Dr. Masiwa R. Gunda
  - Programme Executive for Overcoming Racism,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WCC, Switzerland
- Revd. Dr Odair Pedroso Mateus
  - Director of Faith and Order -WCC, Switzerland
- Revd. Father James Puglisi

- Friar of the Atonement, Centro Pro Unione, Italy/USA
- Revd. Dr Mikie Roberts
  - Programme Executive for Spiritual Life -WCC, Switzerland
- Revd. Dr Jochen Wagner
  - Arbeitsgemeinschaft Christlicher Kirchen in Deutschland, Germany

###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참석자

- Revd. Dr DeWayne L. Davis
  - Pastor, Plymouth United Church of Christ, south Minneapolis
- Revd. Jia Starr Brown
  - Pastor, First Covenant Church, Minneapolis
- Revd. Anthony Galloway
  - Pastor, St. Mark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Duluth, Minnesota
- Presiding Elder Revd. Stacy L. Smith
  - Presiding Elder, St. Paul/Minneapolis District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 Ms. Leslie E. Redmond Esq.
  - Founder of *Don't Complain Activate* & Former President of Minneapolis NAACP
- Revd. Dr. Kelly Sherman Conroy
  - Nativity Lutheran Church, Minnesota
- Revd. Jim Bear Jacobs
  - Minnesota Council of Churches
- Revd. Antonio Machado
  -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America, Dr. Cynthia Bailey Manns Director of Adult Education, Saint Joan of Arc Catholic Church
- Revd. Dr. Curtiss DeYoung
  - CEO Minnesota Council of Churches
- Revd. Dr. Amy Gohdes-Luhman
  - Pastor, Waconia Moravian Church, Waconia Minnesota

## 예식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

강과 물이라는 중심 주제는 이 예식 자료를 준비하는 지역 위원회와 문화적으로 깊은 관련성이 있다. 미네소타 지역에서 강과 물은 이 지역의 역사적 관점에서 문화적 발원이면서 집단 학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중심 주제는 신학적 전례적/예전적 중요성도 가진다. 북반구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은 많은 전통에서 주님 세례 축일을 기념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에 거행된다. 모든 이가 사랑의 공동체이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라는 이 믿음은 사회 정의, 특히 인종 정의의 일에 힘을 쏟게 하며, 특히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정의로 평화를 가져다주시는 하나님께 협력하는 사람들로서 공적 증언과 옹호를 하도록 요청한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은, 우리가 교회의 기원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살아 있는 돌들로 세워진 때인 성령 강림 대축일 즈음에 거행된다.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계신 성령에 의하여 일치시키고 예언하시는 성령에 힘입어 세워졌다. 다양성 가운데의 일치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일치와 예언의 힘은 정의의 활동에 힘을 주며, 우리가 공동으로 지닌 인류애를 드러내고 서로의 다름에도 함께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힘을 통하여 그 힘을 증언하는 능력도 준다.

미네소타 원주민의 상황에서 돌과 물의 관계는 생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흔히 미국의 원주민 지혜에서 물과 돌은 거룩한 자리를 차지한다. 물은 생명이고 돌은 많은 세대가 밟 디디고 서 있었던 땅의 거룩함을 상징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상징은 기도 예식에서 사용될 것

이다. 물은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의 세례를 나타내고, 돌은 우리 개인의 역사와 선조들의 역사를 나타낸다.

회중과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일치 기도 주간의 핵심 본문(사 1:12-18)을 접목한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잠시 갖는다.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을 읽는 동안 참회 행위의 일부분으로 인도자는 세례대나 수반에 물을 붓는다. 이 행동은 천천히 소리가 잘 들리게 하여 회중이 봉독되는 성경구절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상징적으로 상기시키는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백과 용서의 예식이 끝나고 나면 시작 기도와 성가와 말씀의 예식이 이어진다.

이사야에 바탕을 둔 강론이나 설교는, 개인적인 그리고 조직적이거나 제도적인 인종 불의와 그리스도인 일치의 문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은 인류 공동체의 조직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일치는 강력하고 가시적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례 때에 받은 동일한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 피조물의 풍성한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류의 일치를 위한 하나님 계획이 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강론/설교는 다음과 같은 상징적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참석한 모든 이는 그들이 입장할 때에 돌을 받아야 한다. 예식을 함께 준비하는 공동체는 인종 불의에 관한 이야기들과 그리스도인 일치가 불의를 극복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이야기할 사람을 두세 명 선정하여 초대할 수 있다. 이야기 전달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십자가 주변 또는 모퉁잇돌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밝혀진 초 변에 자신의 돌을 둔다. 이러한 예식 행위는 15분가량 이어지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 상징적 행위를 마치면서 인도자는 회중들이 예식이 끝난 다음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다.

이 일치 기도 예식은 전구 기도와 함께 바치는 주님의 기도, 그리고 강복/

축도와 파견으로 끝난다. 예식의 각 순간을 위한 음악에 대한 지침이 그리고 일부 제안 문구나 성가가 첨부되어 있다.

이 일치 기도 예식은, 지역의 예식과 기도와 같이 관례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표현과 폭넓은 거행 방식으로 지역 상황과 전통에 맞춰 사용하도록 간단한 순서로 구성된다. 이 예식서에 적힌 말들을 통하여 미네소타에 거주하고 있는 노예살이를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토착민들의 후손들의 감정과 어려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예식을 위하여 선정된 성가와 노래에서 특히 강조될 것이다.

## 예식 순서

###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이사야 1:17)

- + 인도자
- ◎ 회중
- 말은이

### 시작

(성가를 부르거나 연주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행렬로 입장한다.)

### 예식으로의 초대

+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세례의 물로써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지만, 죄를 지어 서로에게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억압 앞에서 공정을 추구하지 않았고, 또한 과부와 고

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우리가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성찰하고, 선행을 배우고 공정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분열을 이겨내고, 우리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온 체계와 체제를 뿌리 뽑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는 일치가 단단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포용의 풍성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다양성의 보화를 발견하는 용기를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sup>6)</sup>

## 성가

## 환영 인사

## 고백과 용서로의 초대

*이사야 1장 12-18절의 독서를 통한 고백과 용서*

+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라고 초대받았습니다.

○ “너희가 나를 보러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 뜰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제 제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사 1:12-13)

◎ 주님, 저희가 겸손하지 않은 걸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오니 저희를 용서하소서.

---

6) 마틴 루터 킹 목사.



(잠시 침묵)

○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사 1:13-14)

◎ 저희는 세계 곳곳에서 겪은 식민주의의 악행에 교회가 연루된 데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나이다.

(잠시 침묵)

○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사 1:15)

◎ 저희는 하나님 피조물의 다채로운 조화를 짓밟아 버린 불의와 억압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나이다.

(잠시 침묵)

*세레대 앞에서 인도자는 독서를 읽는 동안 세레대나 수반에 물을 천천히 붓는다.*

○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사 1:16-17)

◎ 저희가 세레의 생명의 물로 깨끗이 씻었으니, 저희를 새롭게 용서하시고 저희가 서로 화해하고 피조물과 화해하게 하소서.

(잠시 침묵)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 하나님께서 자비로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여러분이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되어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잠시 침묵)

+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 **하나님, 감사합니다.**

## 기도

+ 모든 이의 하나님, 저희가 저지른 불의와 분열의 죄를 고백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어진 이 기회에 마음과 몸을 다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는 하나님 피조물의 아름다운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가족을 이루며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저희 가운데에는 토착민들, 노예살이의 후손들, 노예를 부리던 이들의 후손들,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있사오나 저희는 모두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옵나이다.

저희는 하나님을 찬미하나이다. 세례의 생명의 물로 진홍빛같이 붉은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가족, 그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저희는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저희는 이 여정을 함께하며, 모든 민족이 함께 나누고 전하는 거룩한 지혜로 이해하고 성장하도록 마음과 눈을 열어 이 날을 거행하나이다. 저희가 서로 일치를 이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모이게 해 주신 한 가족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 찬송

### 서간 독서

에베소서 2:13-22

### 시편 제42편(화답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 언제 가서 뵈오리이까?

◎ 하나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 “너의 하느님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온종일 빈정거리니  
밤낮으로 흘린 제 눈물 저의 빵이 되나이다.  
영광의 초막, 하나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은 가운데  
축제의 무리와 행진하던 일 되새기며 제 영혼이 북받쳐 오르나이다.

◎ 하나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나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 주하나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 낮 동안 주님이 자애를 베푸시니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 부르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네.  
나의 반석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어찌하여 이 몸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핏박 속에 슬피 울며 걸어가야 하나이까?”

◎ 하나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적들이 온종일 빈정거리며 제 뼈가 으스러지도록  
저를 모욕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있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 하나님께 바라라. 나 다시 그분을 찬송하리라.

## 복음

마태복음서 25:31-40

## 성가

### 강론/설교

(설교 후 잠시 침묵 또는 성가)

### 돌과 이야기

*이야기를 전달해 줄 선정된 두세 명이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한다.*

+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는 돌들인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야기들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곧추세워집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그리스도인 일치의 모퉁잇돌이신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얽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교를 이루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이야기들도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돌을 손에 들고서, 이야기들을 들으며 성찰하도록 합시다.

*이야기 전달자들이 증언한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배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송을 바친다.*

◎ ‘선행을 하고 공정을 추구하라’는 이사야의 요청에 응답하고자 저는 애쓰나이다.

## 성가

### 기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날 저희는 누군가에게는 이어가기 버거운 삶을,  
누군가에게는 넘쳐나는 풍요를 가져다준  
행동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을 존중하면서  
저희가 받은 자원들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신임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나이다.

◎ 그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소서.

+ 자애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서로에게 준 피해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만들어 놓은 분열을  
회복하게 저희를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가 생겨나도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저희의 갈등을 치유하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일치의 선물을 주소서.

◎ 그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소서.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그리스도께서는 분열의 장벽과 속박의 편견을 허무시며  
선행을 베푸시어 이 땅에 공정을 이루셨나이다.  
저희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도록  
저희 마음과 정신을 열어 주소서.

◎ 그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소서.

+ 성령님,

성령께서는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만드시나이다.

산의 정상이, 하늘의 천둥이, 호수의 찰랑거림이 저희에게 말하나이다.

◎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 희미한 별빛이, 아침의 상쾌함이, 꽃들에 맺힌 이슬들이 저희에게 말하나이다.

◎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가,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저희에게 말하나이다.

◎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 무엇보다도 저희는 ‘아빠, 아버지’라 외치며 저희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마침기도

+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인 이들의 얼굴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이들을 파견하소서.

이들이 성령에 힘입게 하시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피조물을 위한 정의를 행동으로 추구하게 하소서.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어, 이 세상이 생명을 얻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믿게 하소서.

## 파견

+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 아멘.

## 성가



## 8일간의 성경묵상과 기도

### 제1일

### 옳은 일을 하도록 배우기

- 사 1:12-18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피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 눅 10:25-36    그 율법 교사는 …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 묵상

이사야 예언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공정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원리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모든 이를 위한 옳고 선한 일도 하기를 원하신다. 히브리 말에서 선을 가리키는 단어는 요텡(yaw-tab)이며, 이 단어는 ‘반가워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 잘하다,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선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연대가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배운다. 사회가 다른 이들의 필요에 점점 더 무관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함으로써

억압받는 형제자매의 편을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그들이 공정하게 평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할 것이다!

인종 차별의 죄를 끊어버리고 그로부터 치유 받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기꺼이 관계 맺게 한다.

## 그리스도인 일치

올법 교사는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종교와 부족과 국적의 차이 너머를 바라보아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알아보라고 요청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알아보고 사랑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구분과 그리스도인 가족 내의 분열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

## 도전

여러분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이들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걷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며 그들의 편에서 소리를 높일 수 있는가?

##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으로 이끄셨으니, 공정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서는 힘과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보고 도움을 주도록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저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모여들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2일

### 공정을 실천하는 것을 ...

- 잠 21:13-15      공정을 실천하는 것을 의인은 기뻐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무서워한다.
- 마 23:23-25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 ...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 묵상

잠언은 처음부터 “사람을 깨우쳐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려는 것”(잠 1:3)을 위한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며 시작한다. 공정을 실천하고 정의를 추구하라는 요청은 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되며 희생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꺼이 받으시는 일로 끊임없이 공유되고 확인된다. 주옥같은 지혜의 말씀으로 화자는 공정을 실천할 때 의인이 기뻐한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공정은 부당한 일을 하는 이들을 화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구분을 넘어서서 공정을 실천할 때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이 공정의 실천이 반대받을 때에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을 하고 대담하게 공정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의로운 일을 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저항과 반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카스트 제도’와 가부장제와 같은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들로 유지되는 체계와 구조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대체로 폭력적으로 공정을 지연시키고 거부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흔히 고통에 무감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질서와 항구한 지혜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권력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공정한 일을 실천하는 데에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억압받고 지배당하고 학대당하는 이들을 위한 공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를 확인하는 데에 기쁨이 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데에 기쁨이 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포를 더욱 잘할 수 있게 한다. 이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곧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화해와 일치를 향하여 가는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현존에 대한 우리 공동의 체험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자.

## 그리스도인 일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불공정에 익숙해졌고 안주하였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를 십일조로 내는 등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에 기뻐하지만 공정과 자비와 신실함이라는 더욱 중대하고 어려운 요구들은 무시한다(마 23:23).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에 익숙해졌고 안주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 의식에 충실하지만, 제자들이 모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주님의 바람을 종종 무시한다.

## 도전

지역의 교파들은 공정을 실천하는 일에 따라오게 될 반대를 버티는 데에 어떻게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가?

##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샘이시나이다. 저희가 공정을 실천하고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응답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3일

###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걸어라

- 미 6:6-8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 막 10:17-31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묵상

내가 아니라 우리이다. 예언자는 하나님 계약에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훈계한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나타나는 히브리인들의 공정과 신의(자비)는 서로 다르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단어들은 **미쉬파트(mishpat)**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 함께 뭉쳐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으라고 요청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걷는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오직 한 개인, 곧 나의 걸음, 나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친교 안에 모아들이시는 사랑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이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공정을 실천”하는 데에 큰 변화를 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드러내고자 공정하게 행동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하나

님의 사랑 넘치는 신의의 자리로 초대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사랑받는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로서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그 사랑으로 초대하도록 부름받는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 되어 증언하는데 함께 행동하도록 요청한다. 내가 아니라 우리이다.

## 그리스도인 일치

“겸손하게 걷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하였던 부자 청년에게 도전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지만, 그는 부유하였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물에 얽매어 있었다. 우리가 재물로 여기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재물은 그리스도인 일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더 위대한 부유함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다.

## 도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장 힘없는 이웃들의 요구에 어떻게 더욱 나은 응답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들 안의 모든 목소리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가?

## 기도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저희가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자매와 공유하는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시야를 넓혀 주시어,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공정과 자애로운 신의를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환대하셨듯이 저희가 이웃들을 환대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저 주신 은총을 저희가 증언하며 더욱 너그러워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4일

### 보라,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 전 4:1-5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자행되는 모든 억압을 보았다. 보라,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억압자들의 손에서 폭력이 쏟아진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 마 5:1-8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묵상

“보라,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누구든 저자가 끔찍하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참극을 목격하였다든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저자가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참으로 보고 그들의 고통과 억압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을지 모른다. 비통함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새롭게 보고 새롭게 발견하는 것에는 희망의 씨앗도 있다. 아마도 이 시간이, 이 증언이 변화를 이끌고 다름을 만들어갈 것이다.

한 젊은 여성이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보고 발견하였다. 2020년 5월에 그 여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지 플로이드 살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세상에 드러났고,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경험해온 것, 곧 특권을 누리는 눈먼 방관자들이 판치는 억압적인 체계의 부당한 지배가 무엇인지 목격하고 마침내 깨닫게 된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를 터트렸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깨달음은, 기도로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시위로, 이미 보여주었어야 할 연민을 세계적으로 이끌어 내었다.

그저 바라보는 것에서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 지상

현실 안에서 주체인 우리를 격려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목격하도록 우리 눈에 붙은 비늘을 벗기실 수 있다. 그 비늘이 떨어질 때에 성령께서는 통찰력과 새롭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응답할 신념도 주신다.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보여 준 한 가지 응답은 조지 플로이드 광장, 곧 플로이드가 살해당한 그곳에 기도 텐트를 설치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교회들과 공동체들은 하나가 되어 슬퍼하는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다.

## 그리스도인 일치

마태복음서의 참행복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시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의로움에 주린 사람들을 보셨음이 틀림없다. 행복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언급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말씀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이들의 거룩한 투쟁을 발견하도록 부름받는다.

## 도전

여러분은 여러분 이웃이 겪는 억압에 대처하는 그리스도교 단체들에 어떻게 참여하였는가? 여러분 지역의 교회들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억압을 겪는 이들에게 연대를 더욱 잘 보여주는 데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 기도

정의와 은총의 하나님, 저희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어 저희가 주변의 억압들을 참으로 보게 하소서. 군중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연민을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제5일

# 그 땅의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기

- 시 137:1-4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하는구나. “자, 시온의 노래를 한 가락 우리에게 불러 보아라.”
- 눅 23:27-31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 묵상

시편 저자의 탄식은 유대인들의 바빌론 유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유배의 고통은 시대와 문화를 따라 울려 퍼지는 것이다. 시편 저자는 아마도 하늘을 향하여 이러한 한탄을 외쳤을 것이다. 아마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비통의 깊은 눈물들 사이로 흘러나온 소리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 시는 불의한 삶에서 그리고 그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무력함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무심한 몸짓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던지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상심은, 유배 간 다른 땅에서 또는 자기 고향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당한 이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다.

시편 안에서 드러난 요구는, 미소 짓게 하고 흥을 돋우도록, ‘기뻐던’ 과거를 노래하게 하는 억압하는 자들의 요구이다. 그 요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이들 앞에 당도하였다. 민스트럴 공연<sup>7)</sup>에서든 게이샤 무도<sup>8)</sup>에

---

7) 미국의 대중문화로 처음 그 형태를 잡았다고 알려진 민스트럴 공연의 시작은 1830년대에 주로 백인이 연극 분장을 하여 얼굴을 검게 칠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모습과 인격을 경멸적으로 묘사하는 공연 제작 형태였다. 그러나 1890년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

서든 또는 서부 황야의 카우보이나 인디언 공연<sup>9)</sup>에서든 억압하는 자들은 빈번히 억압받는 자들의 생존 보장을 걸고 기쁘게 공연하도록 요구하였다. 억압하는 자들의 뜻은 간단하고 잔인하였다. 억압받는 자들의 신성한 고유성을 드러내는 노래, 기념들, 문화적 정체성은 억압하는 자들을 위한 것일 때에만 바쳐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시편에서 억압받는 세대들은 목소리를 낸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려고 노래한다. 우리는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덕분에 홀로 있지 않아 노래한다. 우리는 수많은 증인에 둘러싸여 있기에 노래한다. 선조들과 성인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그들은 우리가 희망의 노래, 자유의 노래, 해방의 노래, 한 민족이 되찾은 고향의 노래를 부르도록 북돋는다.

## 그리스도인 일치

누가복음서는 군중들이, 특히 많은 여인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한다. 이렇게 따라간 것은 충실한 제자직을 뜻한다. 더욱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충실하게 지고 견뎌야만 할 어려움과 고통을 알아보신다.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 덕분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전통 간에 성가, 기도 묵상, 통찰을 나눈다. 우리는 서로 이러한 나눔들을, 신앙 그리고 빈번히 고난을 겪었던 우리 저마다의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 그리스도인

---

들이 우습고 원시적이며 과하게 원초적으로 그려진 흑인 정체성의 고정 관념에 맞서려는 더욱 무거워진 책임감을 느끼면서, '유색 민스트럴 공연들'에서 '검게 칠하고' 노래하며 춤추고 성과 같은 자극적인 사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 예술가들은 인종 차별자의 전형들과 정치적 논의의 균형을 잡고 무대 위에서의 자기표현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 8) 17세기에 일본에서 게이샤의 역할이 '예술가'로 떠올랐다. 이들은 다도에서 무도와 음악과 대화와 다양한 행위로 사람들을 접대하였다.
- 9) 1876년의 리틀 빅혼 전투 이후에, 버펄로 빌 코디가 황량한 서부 공연, 곧 커스터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재현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서부 지역의 것으로 연출한 이동 야외극을 창립하였다.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은 야만적인 대신 길들여진 것처럼 보이는 원주민의 실제 생활이었다. 미국 원주민들은 인디언 지역에서 미국 정부가 여전히 전투를 치르고 있는 동안 이 공연에 참여하였다.

들의 사랑이 넘치는 제자직을 통하여 전해진 선물로써 받는다. 이렇게 나눈 선물들은 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보화이고 우리가 나누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증언한다.

## 도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았고 유배 때에도 믿음과 희망과 해방의 노래를 불렀던 선조들과 성인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칭송하는가?

## 기도

억압받는 이들의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 주시어 그리스도 안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끊임없이 가해지는 해악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가 한목소리로 노래하고 고통의 신음이 묻혀버린 이들과 함께 저희 목소리를 높이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제6일

#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 겔 34:15-20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 마 25:31-4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 묵상

마태복음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아픈 이들을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돌보고 섬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2020년과 2021년은 하나님 가족의 일원들이 겪는 거대한 고통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었다. 온 세상에 퍼진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경제, 교육, 환경의 격차와 함께 복구하는 데에 수십 년이 걸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개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고통을 드러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과 공감과 연대로 하나 되게 하였다. 한편, 미네소타에서는 데릭 쇼빈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사건으로 지속되어

온 인종 차별의 불의가 드러났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라고 한 플로이드의 울부짖음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억압의 무게 아래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울부짖음이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이들 저마다의 거룩함과 존엄을 귀하게 여기라고 요청하신다.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기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책임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신앙을 실천한다.

## 그리스도인 일치

에스겔 예언자는 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들은 데려오고 부러진 양들을 싸매 주시어 양 떼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목자로 묘사한다. 일치는 당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분께서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일치를 불러일으키시고 양 떼를 하나 되게 하신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례 받은 모든 이의 일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을 받으려 마음을 연다.

## 도전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 가장 작은 이들”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 교회들은 “이 가장 작은 이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가?

##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끝없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온 인류 가족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널리 전하도록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제7일

### “지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 욥 5:11-16     천대받는 자가 다시 희망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스스로 입을 막지 않을 수 없네.
- 눅 1:46-55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다.

### 묵상

욥은 선한 삶을 살고 있었고 재물과 종들을 잃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받았으며 그의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견뎌내었다. 그는 정신과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정신과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

2021년 4월 11일 미네소타에서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스무 살 청년 단테 라이트는 차량 검문 중에 백인 경찰관이 쏜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대한 데릭 쇼빈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하였다.

우리가 인간 존엄과 모든 인간 존재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며 보호하지 못하는 분열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거듭 상기될 때면 절망을 느끼기 쉽다. 탁월한 가톨릭 사회 윤리학자이자 인종 정의에 관한 연구자인 브라이언 매신게일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생활은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간들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이다. 이는 인간들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들이 부수고 분열시키며 분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하고 일치시키며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바로 그 안에 희망과 도전이 있다.”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대로 사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 사이의 분열을 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을 사랑하고자,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마음을 맞추는 것이다.

## 그리스도인 일치

마니피캣(Magnificat)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부르는 마리아의 기쁨의 노래이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어 균형을 회복하시고,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어 불의를 바로 잡으시며, 당신 종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으시거나 당신 백성을 저버리는 일이 없으시다.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특히 소규모 공동체들에 속한 이들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낮추보기 쉽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어 당신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저마다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고, 우리 그리스도교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듯이 귀하게 여기라고 부름받는다.

## 도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의가 제 입을 다물게” 하시리라는 희망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함께 모일 수 있는가?

## 기도

희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 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빈번히 찾아오는 불청객인 절망이 저희 마음에 자리할 때에 저희가 서로를 위한 희망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불의를 뿌리 뽑고자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 사랑의 영에 뿌리내리는 은총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을 저희가 사랑하고 바로 이 사랑을 저희 행동으로 드러낼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제8일

### 친교를 되찾아 주는 정의

- 시편 82:1-4 약한 이와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불쌍한 이와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 눅 18:1-8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시겠느냐?

### 묵상

시편은 기도와 찬양과 탄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을 엮은 것이다. 시편 8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지닌 자유, 안보, 존엄, 건강, 평등, 사랑과 같은 기본 인권을 지키는 정의를 요구하신다. 또한 시편은 불균형과 억압의 체제를 타도하고, 불공정하거나 부패하거나 착취하는 모든 것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촉진하도록 부름받은 정의이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과 행동에 맞춘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을 포함하여 분열은 언제나 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친교의 회복은 언제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가 소중하고, 사람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며, 사회의 모든 제도적 구조의 장치가 모든 이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지 강화하는지 가늠하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구체화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공동선과 모든 이, 특히 가장 불쌍한 이와 가련한 이들의 안녕을 함께 추구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모든 이에게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영적 지도자였던 하워드 셔먼 박사는 그의 저서 《예수와 상속권을 박탈당한 자》 *Jesus and the Disinherited*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이며 우리가 모두 함께 엮여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이들이 보호와 회복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일하여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회 변화의 제대 위에 올려 두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 그리스도인 일치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눅 18:1)는 뜻으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불의와 죄와 분열에 분명히 승리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이 승리를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리고 다음으로 행동을 통하여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기도하며 일치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청하고 우리 삶에서 이 일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자.

## 도전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들은 모든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일치되어 행동하게 하는 정의에 참여하라고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 기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영 안에 머물러 내면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언제나 사랑과 정의의 길을 선택하고자 지혜와 용기를 지니고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 미네소타 교회협의회<sup>10)</sup>

---

미네소타 교회 협의회(Minnesota Council of Churches: MCC)는 소속 교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히스토릭 블랙(Historic Black), 주류 개신교, 오순절 교회, 평화 교회, 그리스 정교회, 다코타(미국 원주민) 장로교 등에서 모인 27개 회원 교단들이 미네소타의 교회들과 함께한다. 현재 가장 주력하는 프로그램은 난민 정착과 돌봄, 종교 간 관계, 사회 정의와 인종 정의이다.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1947년에 설립되었으며, 미네소타 주에 있는 몇몇 교회 일치 단체들의 연합체였다. 루터교가 회원 가입을 하기에 앞서 몇 년간은 다수의 다른 개신교를 대표하고 있었다. 또한 그리스 정교회의 가입으로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교회 일치적 성장이 한층 더 이루어졌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세인트 폴-미니애폴리스 대교구, 그 밖에 미네소타 주의 여러 교구들이 미네소타 교회협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진보적 복음주의파들과도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오랜 시간을 거쳐 오면서 이슬람, 유대교, 단일신교(Unitarian), 불교, 힌두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과도 굳건한 유대 관계를 이루었다.

초기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백인 개신교 교회들의 대표였고, 그 모든 회원 교단의 구성과 통솔에서 백인이 주류를 이루었다.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첫 반세기 동안 인종주의 문제와 흑인과 원주민과 유색 인종(Black, Indigenous, and Person of Colour: BIPOC) 공동체들의 협의회의 임무와 협력 관계에 대한 참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백인의 인종주의’, 시민권, 인종 관계가 다루어야 할 사안들로 주목받았다. 미국 원주민 그리스도교 공

---

10) 이 본문의 복제는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의 원문을 작성한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단독 권위와 책임 아래서만 이루어집니다.

동체들과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1957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행사를 주최하였고, 1968년에 애틀랜타에서 치러진 그의 장례식에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세인트 폴 지역 교회협의회(St. Paul Area Council of Churches)와 그레이터 미니애폴리스 교회협의회(Greater Minneapolis Council of Churches)와 협력 관계를 맺어 인종주의 반대 전략인 미네소타 교회 반인종주의 계획(Minnesota Churches Anti-Racism Initiative: MCARI)을 출범시켰다. 교회들은 15년 이상 이 반인종주의 교육과 평가 활동의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 교육 기관들과 비영리단체들도 도움을 받았다.

계속해서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히스토리릭 블랙 교파와 여러 아프리카계 미국 교단들과 교류해 왔다. 미네소타에 있는 히스토리릭 블랙 교파 네 곳이 고정 회원이 된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였다. 2015년에 이르러서는 아프리카계 감리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Church of God in Christ), 미국 전국 침례교 대회(Th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USA), 세계 오순절 성회(Pentecostal Assemblies of the World)가 모두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회원이 되었다. 2020년에는 다코타(미국 원주민) 장로교와 흑인들이 이끄는 다인종 교파인 그리스도교 성교회들의 친교(The Communion of Holy Christian Churches)가 가입함으로써 27개 회원으로 이루어진 그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히스토리릭 블랙 교파들을 회원으로 두었음에도 여전히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구성과 통솔에서는 백인이 압도적이었다.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이사회는 회원 교파들의 법적 수장들과 소수의 기타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로써 백인의 우위가 보장되었다. 협의회가 사회에서 인종 정의를 위한 활동에 더욱 깊이 투신하였기에, 이는 협의회 지도부에 근심을 안겨 주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인종 정의 활동의 일관성을 보장하고자 인종 평등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통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018년에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흑인 교파의 법적 주장들이 오래지 않은 미래에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지향하여 나아갔다. 이는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통치에서 흑인 지도부의 영향력과 의사결정력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변화였다. 이에 이어, 열 명으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를 흑인과 원주민과 유색 인종이 다수가 되도록 하였다.

2019년에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협의회 향후 활동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20명으로 이루어진 전망과 계획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미국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은 동등한 대표권을 지녔다. 위원회 위원의 상당수가 40세 이하였고 다수가 여성이었다. 이 위원회는 흑인과 백인으로 나누는 미국의 인종 이원론을 넘어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미네소타 교회협의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2020년에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이사회는 흑인과 원주민과 유색 인종이 이사회 다수가 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무임소 회원을 추가하는 내규의 수정을 승인하였다. 2021년에는 협의회 사상 최초로 흑인과 원주민과 유색 인종과 여성이 다수를 이루는 이사회가 취임하였다.

통치 구조의 변화는 인종 정의에 더욱 초점을 둔 계획 입안, 신규 직원 선임, 유사한 활동에 헌신하는 기관들과의 관계망 구축으로 이어졌다. 2020년 5월 25일에 미네아폴리스에서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으로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인종 정의에 관한 활동을 더욱 늘리게 되었다. 관계망과 협력 관계를 통하여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시위에 참여하고 사회 불안에 대한 대응에 동참하였다. 흑인 교파 지도자들이 천 명이 넘는 성직자들과 함께한 시위와 기도 행진을 이끌었다.

플로이드의 사망 몇 주 뒤에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법적 지도부는 미네소타의 인종 차별의 기저에 깔린 상황들에 대처하는 응답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에 대하여 숙고하기 시작하였다. 미네소타를 미국 내에서 최대 인종 차별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게 만든 체계의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2020년 9월에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이사회는, 진실 규명, 교육, 배상에 초점을 맞

추게 될 인종 정의를 위한 세 가지 중점 사항 행동 플랫폼을 승인하였다. 변화를 위한 이 행동 플랫폼을 통하여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미네소타 주에서 인종 차별에 관한 진실 규명 과정을 시작하고 인종 차별이 끼친 피해를 배상하는 데에 투자하여 인종 평등을 더욱 추구해 나가는 데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진실과 배상의 과정은 미네소타의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 끼친 역사적 피해를 다룬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서 온 이주민과 난민인 이들은 불평등을 불러오는 기존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흑인과 원주민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공동체들에게도 유익을 가져온다.

진실과 배상은 주 전체 차원에서 작용한다.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회원 교파가 이르는 지리적 범위는 미네소타 주의 거의 모든 공동체에 그들 신자들이 있는 것과 같다. 27개 회원 교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시골 지역, 중소도시, 시 외곽 지역, 미니애폴리스 시와 세인트폴 시에서 그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세 가지 중점 사항 행동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증진한다.

## 1. 진실 규명.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진실 규명을 요청하고, 외치는 소리에 기꺼이 귀 기울이며, 배상을 지지하고, 변화를 위한 책임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강력한 윤리적 목소리를 보낸다. 진실 규명은 신앙 공동체가 인종적 불의에 공모하였음을 밝혀내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진실과 배상 계획은 진실 규명을 활용하여 백인 우월주의를 강화하는 지배 서사에 도전함으로써, 불평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풀뿌리 이야기들을 드러내어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 진실 규명은 지역적으로 주 전역과 도시와 마을에 따라 여러 맥락에서 시작될 것이다. 부족 공동체들 그리고 흑인 공동체 지도자들과 이루는

더욱 깊은 관계를 통하여 이야기들이 실체를 갖춘다. 정책, 토지, 보건, 교육, 재산, 고용, 주거 등의 사안이 포함된다.

## 2. 교육.

교파와 회중은 반인종주의 교육, 문화적 역량, DEI(다양성, 평등, 포용)에 기반한 지도력 개발 등을 통하여 준비된다.

## 3. 원주민과 흑인 공동체 배상.

이는 인종 차별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목표로 한다.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미네소타 주 전역의 정부, 기업, 학계와 기타 단체에서 배상 과정과 평등을 추구할 것이다.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역사적 불의에 대처하고 흑인 공동체와 원주민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행 구조에 평등을 불어넣는 배상을 요구하고 법제화하며 제공할 연합과 윤리의 세력을 건설할 것이다. 배상 활동이 성공하려면 원주민과 흑인 지도자들과 이루는 공고한 관계가 필요하다. 배상 방식도 흑인 공동체와 원주민 공동체가 결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진실 규명과 조화를 이루어 진행될 것이다.

2021년에 미네소타 교회협의회는 미네소타 흑인 공동체와 원주민 공동체 출신의 인종 정의 공동 국장들을 선임하여 진실 규명 과정에 착수하였다. 대화를 시작하고, 인종 차별 피해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진실 규명에 기반한 공동체 주도의 배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진실 규명, 교육, 배상의 과정은 적어도 십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

---

1968-2023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도 주간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엡 1:14)

1969년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갈 5:13)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0년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고전 3:9)  
(독일 니더알트아이흐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1년 “성령의 친교”(고후 13:13)  
(이탈리아 바리에서 준비모임)

1972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요한 13:34)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3년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눅 11:1)  
(스페인 몽세라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4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합니다”(빌 2: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5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하나님의 계획”(엡 1:3~10)  
(오스트레일리아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6년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요일 3:2)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리브 교회 회의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 1977년 “희망을 갖고 함께 인내하십시오”(롬 5:1~5)  
(내전 중인 레바논에서 초안 준비,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78년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엡 2:13~22)  
(영국 맨체스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 1979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벧전 4:7~11)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0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마 6:10)  
(구 동독의 베를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1년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인 몸”(고전 12:3~13)  
(미국 그레이머우에 있는 속죄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 1982년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시 84[83]편)  
(케냐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 1983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요일 1:1~4)  
(아일랜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셸리니[보세]에서 준비모임)
- 1984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고전 2:2; 골 1:20)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준비모임)
- 1985년 “하나님께서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엡 2:4~7)  
(자메이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그랑상에서 준비모임)
- 1986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행 1:6~8)  
(유고슬라비아[슬로베니아]에서 초안 준비, 유고슬라비아에서 준비모임)
- 1987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6:4)  
(영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떼제에서 준비모임)
- 1988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일 4:18)  
(이탈리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피네롤로에서 준비모임)
- 1989년 “공동체 건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롬 12:5~6)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 영국 웨일리 브리지에서 준비모임)

- 1990년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 17장)  
(스페인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준비모임)
- 1991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시 117[116]편; 롬 15:5~13)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풀다 지역의 로텐부르크에서 준비모임)
- 1992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가라”(마 28:16~20)  
(벨기에에서 초안 준비, 벨기에 브뤼주에서 준비모임)
- 1993년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갈 5:22~23)  
([현재 공교 민주 공화국인] 구 자이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취리히 근교에서 준비모임)
- 1994년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행 4:23~37)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준비모임)
- 1995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서로 이루는 친교”(요 15:1~17)  
(신앙직제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영국 브리스틀에서 준비모임)
- 1996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계 3:14~22)  
(포르투갈에서 초안 준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준비모임)
- 1997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고후 5:20)  
(북유럽 교회 일치 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준비모임)
- 1998년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롬 8:14~27)  
(프랑스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모임)
- 1999년 “하나님께서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계 21:1~7)  
(말레이시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보세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0년 “하나님께서서 찬미받으시기를 빚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엡 1:3~14)  
(중동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베르나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1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1~6)  
(루마니아에서 초안 준비, 루마니아 볼칸에서 준비모임)
- 2002년 “정녕 주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시 36[35]:6~10)  
(유럽주교회협의회와 유럽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독일 아우쿠스부르크 근교에서 준비모임)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 2003년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고후 4:4~18)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로스 루비오스에서 준비모임)
- 2004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 14:23~31; 14:27)  
(시리아 알레포에서 초안 준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준비모임)
- 2005년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고전 3:1~23)  
(슬로바키아에서 초안 준비, 슬로바키아 피에스타니에서 준비모임)
- 2006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 18:20)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킬대어 주 프러스페러스에서 준비모임)
- 2007년 “귀족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막 7:31~37)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베르주에서 준비모임)
- 2008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살전 5:13~18)  
(미국에서 초안 준비, 미국 개리슨 시 그레이모어에서 준비모임)
- 2009년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겔 37:15~28)  
(한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준비모임)
- 2010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눅 24:48)  
(스코틀랜드에서 초안 준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준비모임)
- 2011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서 하나 되기”(행 2:42참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초안 준비, 시리아 사이드나야의 크리스토포루스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12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58 참조)  
(폴란드에서 초안 준비-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준비모임)
- 2013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미 6:6~8참조)  
(인도에서 초안 준비-인도 방갈로르에서 준비모임)
- 2014년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고전 1:1~17참조)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준비모임)

- 2015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요한 4,7)  
(브라질에서 초안 준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준비 모임)
- 2016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벧전 2:9)  
(라트비아에서 초안 준비, 라트비아 리가에서 준비 모임)
- 2017년 화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고후 5:14~20 참조)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준비 모임)
- 2018년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의 오른손(출 15:6)  
(카리브 지역에서 초안 준비, 바하마 나소에서 준비 모임)
- 2019년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신 16:18-20)  
(인도네시아에서 초안 준비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준비 모임)
- 2020년 그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행 28:2)  
(몰타에서 초안 준비 - 몰타 라바트에서 준비 모임)
- 2021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요 15:5~9)  
(그랑상 공동체에서 초안 준비 - 스위스 아루즈에서 준비 모임)
- 2022년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 2:2)  
(레바논 중동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 온라인 준비 모임)
- 2023년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사 1:17)  
(미국 미네소타 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 스위스 보세에서 준비 모임)

##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데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냐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울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프랑스 리옹)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 기도 주간의 준수를 장려
-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작성

##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87기)

### 수강생 모집

- 일 시: 2023년 4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총10강)
- 장 소: 현장&줌 온라인 강의
- 수강비: 10만원
- 대 상: 평신도 천주교인 25명, 개신교인 25명(선착순, 수도자목회자 가능)
- 2023년 2월 중 공지 예정: [www.fno.or.kr](http://www.fno.or.kr)

#### 강사(\*변경 가능성 있음)

송용민 신부	독일 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손정명 수녀	로마 안토니아눔 신학대학,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안교성 목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현혜 목사	일본 도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민균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준양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태식 신부	독일 괴팅엔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임종훈 신부	서울대학교, 정교회출판사 편집장
조기연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장동훈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윤재 목사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찬석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협성대학교 교수
조현철 신부	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정태영 신부	로마 교황청립 안토니오 대학교, 작은형제회
정경일 박사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
장영주 사관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커리큘럼**(\*변경 가능성 있음)

강의	주제와 내용
1강	(개강) 오리엔테이션,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b>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b>	
2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 : 정교회와 천주교회
3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I : 개신교회, 종합토론
4강	다양한 교회인가, 하나인 교회인가? :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
<b>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b>	
5강	나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 : '구원'에 대한 상호 이해
6강	성경만으로, 성례만으로? : 말씀과 성례(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
7강	"누가 교회인가?" : 교회의 직무와 직제에 대한 상호 이해
<b>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일치</b>	
8강	오늘의 생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9강	그리스도교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10강	(종강) 종합토론, 수료식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1월 18일~25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0312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기독교회관 706호

전 화 · 02-743-4471

팩 스 · 02-744-6189

홈페이지 · [www.fno.or.kr](http://www.fno.or.kr)

**원문:**

Resources for 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and throughout the Year 2023, *Do good; seek justice (Isaiah 1:17)*, Jointly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and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http://www.christianunity.va/content/unitacristiani/en/settimana-di-preghiera-per-l-unita/week-of-prayer-for-christian-unity-20230.html>

